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소망부 가을 수련회

주제: 사랑의 사금 (요일4:7~10)
일시: 10월 24일(화) 10:00~15:00
장소: 갈릴리홀

청년2부 주관 금요일집회

일시: 10월 27일(금) 금요일집회시

2023 동역교회 지원 사랑실천 바자회

기간: 10월 22일(오늘)까지
시식 및 주문 장소: 코니카페(갈릴리홀 앞)
품목: 꿀, 포도, 사과, 된장, 고추장, 상추 등
판매방법: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2023년 제2차 유아세례식 및 교육 안내

유아세례교육: 11월 5일(주일)~11월 26일(주일) 총 4주간
유아세례식: 12월 3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신청 대상: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교인 부모
(부모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함)
신청 기한: 11월 5일(주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큐알코드)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



날짜	시간	교육내용
11월 5일 (주일)	14:00~15:00	유아세례의 성경적 의미 박요셉 목사 (제 1교육관 302호)
11월 12일 (주일)	14:00~15:00	하나님의 언약과 유아세례 박요셉 목사 (제 1교육관 302호)
11월 19일 (주일)	14:00~15:00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박요셉 목사 (제 1교육관 302호)
11월 26일 (주일)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박요셉 목사 (제 1교육관 302호)
		문답 해당 교구 & 부서
12월 3일 (주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14:50까지 본당 입실)

묵상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2)

시편의 서론인 시편 1편이 제시하는 의인의 길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즐거워하는 것과 묵상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묵상은 신중하고 꾸준한 사고를 요하는 것인데 잘 이루어진 묵상은 즐거움을 제공하고 강화하며 지속시킵니다. 묵상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의지에 더욱 깊이 파고들게 합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롬 12:2). 그러나 분주하고 분산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묵상을 힘들어 합니다. 묵상을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묵상을 위해 되도록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계획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고 또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십시오. 손에 펜을 들고 읽으시고, 때로 읽은 본문 중 은혜 되는 구절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내가 본 것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의지적인 묵상을 통해 그 즐거움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충현교회 묵상집

매일성경 (11·12월호)발간

구입: 사무국, 정문 안내실 가격: 2,000원



2023년, 제2차 학습, 세례식(성인) 교육 및 일정

날 짜	시 간	학습 교육/담당자	장 소	세례, 입교 교육/담당자	장 소
10/22(주)	12:10 ~ 12:50	성도의 생활, 신조 (정석훈 목사)	제1교육관 602호 (6층)	종말, 재림, 성례 (문진호 목사)	제1교육관 501호 (5층)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10/29(주)	주일찬양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14시 50분까지 본당 입실 바람			

2024년 사랑부 청년반 신입교사 모집

사랑부가 분반하여 청년반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부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반교사(양육교사), 찬양팀 교사, 행정교사, 보조교사
예배장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예배시간: 주일 11:00~12:00
문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디도서 3:4-8)



디도서는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중 그레테 섬에서 개척했던 여러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감옥에서 2년여 투옥기간이 끝난 후, 다시 5-6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 부르는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으며, 고대 지중해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이자 1세기 당시 지중해 패권을 위한 요충지였던 그레테(크레타) 섬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딤후 1:4a)” 성경은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켜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았듯,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의 믿음도 서로 닮았습니다. 디도는 디모데보다 터프했기에, 바울은 어려운 사역지에는 디도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보냈던 사람도 디도였고, 순교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바울과 동행했던 이도 디도였습니다. 추측하건대 디도는 체격도 크고, 남성적이었기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듯합니다. 바울은 그레테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장로를 잘 세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장로란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일꾼을 가리킵니다. “미쁘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딤후 1:9)” 바울은 일꾼을 잘 세워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일꾼의 핵심요건은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섬김과 돌봄의 책임은 물론,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능히 이길 실력이 요구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선한 일이라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에, 바른 교훈의 목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훈과 바르지 못한 교훈을 분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심지어 바르지 못한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하려는 이들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은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딤후 3:5)’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경건한 연기를 함에 최고 수준에 달한 이들이기에 결코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 18:22)” 성경은 참된 교사와 거짓선생을 구별할 기준으로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딤후 1:16)” 디도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란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기에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선한 일을 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른 교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통치하심이 바른 교훈에 담겨 있기에,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도서에서 ‘바른 교훈’, ‘선한 일’, ‘좋은 일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선한 일은 윤리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다스리고, 그의 성품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교훈의 열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2:11-14)” 디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구절 중 한 곳인 2장 11-14절은 디도서를 사랑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바른 교훈의 열매이며, 양육을 받을 때 단순한 감정적인 좋음과 기쁨을 넘어 신앙의 성품이 양육됨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표현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의미하기에 성도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디도서의 아름다운 또 다른 구절은 3장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딤후 3:1)”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4-7절)” 바울이 설교했던 진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였는데,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디도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을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성령이 풍성히 부어짐으로 인하여,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힘도 주어집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3:26)”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지위도 누리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유익함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군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8절)” 그리스도인이 바른 교훈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쓸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은, 아름다움과 유익함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익한 성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되기에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아름답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Beautiful’이라는 단어 대신 ‘Good’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몇몇 성경 번역은 아름다움을 가리켜 ‘Excellent’, 즉 탁월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른 교훈과,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삶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성도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자, 성도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길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이 세상 가운데에서 탁월하고 유익한 성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How and For What Are We Saved?

(Titus 3:4-8)

Rev. Kyu Sam Han

The Epistle to Titus is a story about several churches on the Island of Crete Paul pioneered during his 4th Missionary Journey. After two years of imprisonment in Rome, Paul preached the gospel again for 5-6 years. During the period which I call Paul's 4th missionary journey, Paul wrote 1 and 2 Timothy and Titus and also visited the Island of Crete which was one of the birthplaces of ancient Mediterranean civilization as well as a key place for the hegemony over the Mediterranean in the first century. At this time the one who accompanied Paul was Titus. "To Titus, my true child in a common faith:(Titus 1:4a)" The Bible refers to both Timothy and Titus as Paul's spiritual sons. As if parents and children resemble one another, the faith of spiritual parents and that of spiritual children resemble one another. Since Titus was tougher than Timothy, Paul sent Titus to difficult mission places. Paul sent Titus not only to solve the Corinthian Church problems but also the one Paul accompanied on his way to Rome to be martyred was Titus. It is presumed that Titus was physically big and masculine, so he became a great strength to Paul. Paul exhorts to appoint elders properly at the beginning of a letter to Titus who was ministering on the Island of Crete. An elder refers to a worker who serves the church with all his heart and cherishes it precious. "He must hold firm to the trustworthy word as taught, so that he may be able to give instruction in sound doctrine and also to rebuke those who contradict it.(Titus 1:9)" Paul was convinced that establishing workers well led to the church being established firmly, and the core condition of a worker was 'sound doctrine'. It was because the responsibility for serving and care-giving was the place that requires the ability to overcome those who teach false doctrines.

Sound Doctrine

Sound doctrine is revealed as fruits of living that are good works, so the goal of sound doctrine is to establish those who can do good work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Christians to distinguish sound doctrines from wrong doctrines. Furthermore, the number of those who try to tempt the saints with wrong doctrines is so large that it is not easy for us to confront. The Bible describes those who teach wrong doctrines as 'those having the appearance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2Tim 3:5). Since those who have the appearance of godliness reach the highest level of acting godliness, it is never easy for us to discern it. "when a prophet speaks in the name of the Lord, if the word does not come to pass or come true, that is a word that the Lord has not spoken; the prophet has spoken it presumptuously. You need not be afraid of him.(Deut 18:22)" The Bible says that the standard of discerning true teachers and false teachers is to see what they say comes true. "They profess to know God, but they deny him by their works. They are detestable, disobedient, unfit for any good work.(Titus 1:16)" Titus expresses it more concretely. A person who renounces any good deed means the one who cannot do good deeds at all, so the one who has super eloquence and looks plausible, but has a wrong doctrine can not do any good dee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Rom 12:2)" While you are trying to do good work, you can have discerning ability. The reason that a person who receives sound doctrine can do any good deed is because God's goodness is contained in sound doctrine. Since the redemption and reign of God are contained in sound doctrine, God's goodness is revealed in our character and the appearance of our living. That's why Titus emphasizes 'sound doctrine', 'good deed' and 'good work' repeatedly. Above all, good work is not only ethically right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God's goodness governs the person who does good works and reveals in his character and living.

Fruits of sound doctrine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for all people, training us to renounce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e present age, waiting for our blessed hope,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lawless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who are zealous for good works.(Titus 2:11-14)" One of the two most lovely verses in Titus, 2:11-14, is also the verse that makes us fall in love with Titus. It's because to be 'self-controlled, upright, godly' is the fruit of sound doctrine, and emphasizes that when nurtured, the character of faith should reach the state of its nourishment beyond the simple emotional goodness and joy. The statement the 'blessed hope' which is used only once in the Bible implies the glorious appearing of Jesus Christ, so that it shows the ground that saints endure and persevere. Another beautiful phrase of Titus is in chapter 3. "Remind them to be submissive to rulers and authorities, to be obedient, to be ready for every good work,(Titus 3:1)" Paul exhorted Titus to prepare for good works. "But when the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of God our Savior appeared,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whom he poured out on us rich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so that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might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vs 4-7)" The truth Paul preached was that we are saved by grace alone, not by works, for which faith in Jesus Christ is needed. One step further, Titus proclaims there is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when we believe. That is, owing to the Holy Spirit being poured out abundantly, the strength to do good works is given to the person who has received sound doctrine. "for in Christ Jesus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Gal 3:26)" In addition, we become children of God by believing in Jesus so that we enjoy the position of heirs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Beauty and profitability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I want you to insist on these things, so that those who have believed in God may be careful to devote themselves to good works. These things are excellent and profitable for people.(v.8)" Another thing that happens when Christians devote themselves to good works according to sound doctrine is beauty and usefulness.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come beautiful Christians and profitable saints. There is a case that a person becomes profitable by doing good work, but a saint cannot but be profitable because he is to do good work by the goodness of God. The word 'πνευματική' in Greek is translated into the word 'Good' instead of 'Beautiful' in the Bible. By the way, some Bibles translate 'beautiful' into 'Excellent', that is, the expression meaning superiority. This is because the life of the person who does good work on the basis of sound doctrine and the goodness of God existing within it is always excellent. Good work is a way saints live with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are separated from the world, the path to reveal their existence as believers, and the work for loving and serving their neighbors. It is also the way to fear and serve God the Creator as creatures.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come saints whose characters and personalities as Christians are excellent and profitable in the world.

2024년 위원회 부서장, 위원, 찬양대장, 재단임원 인선 현황

예배위원회 : 위원장 임광신

서기 김철남 / 회계 한흥연
위원 최승민 이석재 문영규 김충식 신현욱 임병익 박노익
예배부장 김열환 / 성례부장 강태영 / 안내부장 김철남 / 헌금부장 이양선 /
중보기도부장 송문식

찬양위원회 : 위원장 김상열

서기 한흥연 / 회계 장기락
임마누엘찬양대장 한흥연 / 할렐루야찬양대장 조윤준 / 아멘찬양대장 김명성 /
벤엘찬양대장 장기락 / 호산나찬양대장 김경숙 / 실로암찬양대장 신현욱 /
예루살렘찬양대장 양기수 / 핸드벨연주대장 강순 / 만돌린연주대장 홍애경

교육위원회 : 위원장 홍순길

서기 임병익 / 회계 김영목
교육지원부장 김동철 / 교사양성부장 홍순길
영아부장 김경숙 / 유아부장 이석중 / 유치부장 김영목 / 유년부장 최재필 /
초등부장 류기제 / 중등부장 임광빈 / 고등부장 김낙교 / 예꿈양육부장 이진수
/ 어와나부장 박진수

차세대위원회 : 위원장 남중호

서기 최승민 / 회계 조운재
청년1부장 이정진 / 청년2부장 최창하 / 브릿지공동체부장 강남석 /
청년3부장 조운재 / 신혼가정부장 홍순혁

세움위원회 : 위원장 변창대

서기 송영상 / 회계 최승민
소망부장 오순도 / 사랑부장 임병익 / 에바다부장 전중욱 /
성경아카데미부장 박영섭 / 평생대학원장 이석재 / 제자교육훈련부장 최승민
/ 성경통독부장 송영상

전도위원회 : 위원장 김영환

서기 김충식 / 회계 현준봉
위원 조종민 송한천 김철남 윤순규
교구전도부장 김원기 / 직능전도부장 이준성 / 동역교회지원부장 유승열 /
훈련지원부장 최병일 / 청년사역부장 김진범

선교위원회 : 위원장 지규성

서기 김세종 / 회계 배종락
위원 최민석
외선부장 강태영 / 기획행정부장 김정현 / 선교1부장 이재관 /
선교2부장 김현진 / 선교3부장 황석환 / 선교지원부장 고영학 /
선교훈련부장 이승근 / 전문인선교부장 박명호

봉사위원회 : 위원장 박원화

서기 신현욱 / 회계 문영규
위원 이상복 남용승 안연식 김충식
자원봉사부장 박원화 / 구제부장 조용국 / 차량안내부장 신현욱 /
재단구호봉사대장 이승득

기획위원회 : 위원장 정인욱

서기 박노익 / 회계 유병규
위원 양기수 홍금성 김세종

교구위원회 : 위원장 김태식

서기 최규옥 / 회계 김희동
1교구장 윤순규 / 2교구장 문영규 / 3교구장 김희동 / 4교구장 박건일 /
5교구장 송한천 / 6교구장 이경환 / 7교구장 최규옥 / 8교구장 박명근 /
9교구장 김태식 / 10교구장 안연식 / 11교구장 박성철 / 12교구장 박노익

행정위원회 : 위원장 이창희

서기 김희동 / 회계 허만선
위원 임창식 신광철 이상석 김성호 박재현
충현기도원원감 이상해 / 충현동산부장 우중호

재정위원회 : 위원장 백봉선

서기 허만선 / 회계 이석재
위원 이성섭 이상해 조종민 현준봉 전성욱 이양선 송문식 신현욱

건축위원회 : 위원장 김중훈

서기 장기락 / 회계 전성욱
위원 장철규 최현구 송영상 배종락 김열환

감사위원회 : 위원장 이흥기

서기 박명근 / 회계 이경환
위원 박건일 최규옥

새가족위원회 : 위원장 홍금성

서기 박성철 / 회계 이보신
위원 김열환
등록부장 이왕진 / 기본양육부장 이상근 / 양육부장 문한성 / 행정부장 김성수

인사위원회

서기 이상배
위원 오순도 양기수 김성호 이상복 지규성 이창희 양효민 정인욱

충현장학회 : 회장 당회장 / 부회장 백봉선

위원 김낙교 이정진 남중호 홍순길 이창희

제직회 : 회장 당회장

서기 황윤성 / 부서기 정재석 정재영 원성수

집사회 : 황윤성(11/1) 권사회 : 김하경

재단법인 충현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양효민 / 상임이사 이창희
이사 오순도 변창대 안연식 이상배 송영상 정인욱 / 감사 이흥기 홍금성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이사장 양기수 / 상임이사 박성철
이사 이창희 임광신 송한천 최승민 / 감사 백봉선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장 허만선 / 상임이사 한흥연
이사 김성호 조종민 현준봉 전성욱 배종락 김철남 윤순규 /
감사 김희동 이경환

※ 직분은 생략합니다.

시행일 2023. 10월 16일 부



신혼가정부에 온 지 4년 정도 되었지만 수련회를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못 간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은혜와 재미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정상 부흥회부터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는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수련회 이틀날에는 면려회에서 준비한 여러 게임 활동들을 통해 순원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박 2일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를 위해 목사님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의 기도와 수고 덕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도래미 집사

아기와 금찬과 부흥회를 참여하기에는 늦은 시간이라 '수련회를 토요일만 참여할까' 타협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전에 '성가대를 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했던 말을 기억하고 남편이 부흥회 때 찬양팀을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아기가 잘 때 엄마 껌딱지라 "여보, 괜찮겠어..?"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걱정 말라고 응원해주었고 남편 덕분에 부흥회 때 오랜만에 육아에 메인 모습이 아닌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에 저희 부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육아에 동참해주셔서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나오는 것에 소홀해졌었는데 신가부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신가부 수련회에서 넘치게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통해 끊임없이 흐르기를 기도하며,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정나혜 집사

올해 신혼가정부 수련회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좋은 수련회' 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신가부 수련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는 주제로 금요헌신집회-기도원 수련회-주일 식당 봉사까지 연계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신혼가정부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성을 함양할 뿐 아니라, 비록 교회에서 가장 작은 부서이지만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신가부 각 가정에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된 수련회'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혼가정부에 '좋은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수련회는 수련회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각 가정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야근을 마친 늦은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부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혼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이번 수련회가 인생 첫 수련회인 남편/아내가 있는 부부, 갓난아기를 달래가며 기도원까지 먼 길을 기꺼이 달려온 부부 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참 감사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가정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루기로 계획하신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기꺼이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해주신 면려회와 순장님들, 특별히 기도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련회에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은빈 집사



신혼가정부 가을 수련회

신혼가정부는 10월 13일(금)~14일(토)에 1박 2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고후 5:18-19) 라는 주제로 가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13일(금)에는 금요헌신 집회를 신혼가정부 주관으로 드렸으며 15일(주일)에는 식당 국수 봉사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대일 양육 동반자 과정 3기를 마치고

일대일 맞춤 양육 프로그램 <일대일 양육 동반자 과정>이 소박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 안의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어머니에게 복음의 기초를 전하기도하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다가 말씀의 깊이와 재미에 푹 빠져 버리기도 하고, 코로나로 힘든 영적 우울감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기도 했던 다양한 간증과 새로운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정에 권사 (동반자 과정 기간 23.5.7-23.9.23 / 양육자 송복임 권사)

직장인이라 주일 예배 외에는 성경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이었다. 우연히 주간 충현을 통해 일대일 양육을 알게 되었고 신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암송을 하다 보니 매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다. 순원들과도 나누지 못했던 가정의 어려움들을 양육자와 나누며 위로 받으며 말씀으로 붙들리는 시간이 되었다. 제 시간에 맞춰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신 양육자 리더 권사님께도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한희 권사 (동반자 과정 기간 23.5.17-23.9.11 / 양육자 도승애 권사)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신앙생활의 감동이 사라지고 무뎠던 것 같은 신앙의 삶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기쁨이 사라졌다. 믿음의 멘토를 만나고자 양육과정을 신청했다. 양육 교재와 필독서조차 다 아는 내용이라 신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양육자 리더 권사님의 전도와 기도의 삶의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다. 또한 외사촌 오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문임 성도 (동반자 과정 기간 23.2.7-23.5.30 양육자 강인선 권사)

저는 절에 다녔는데 2015년 병중에 있는 남편과 함께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딸과 함께 일대일 양육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끝나고 나면 마음에 평안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통치하고 계심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 믿게 되었습니다. 16주 과정을 마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깨달아진 말씀을 어떻게 체계 있게 전해야 할지는 아직 부족하여 잘 모르겠지만 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고 남은 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해하도록 열심히 가르쳐준 딸에게도 감사하며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신자 성도 (동반자 과정 기간 22.12.26-23.7.6 양육자 신동미 권사)

딸의 오랜 전도 끝에 믿음 생활한지 4년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양육자가 매주 집으로 찾아와 일대일 양육을 하며 중간에 입원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6주 끝까지 양육을 다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24시간 함께 하는 요양보호사도 전도하며 함께 일대일 양육을 통해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며 믿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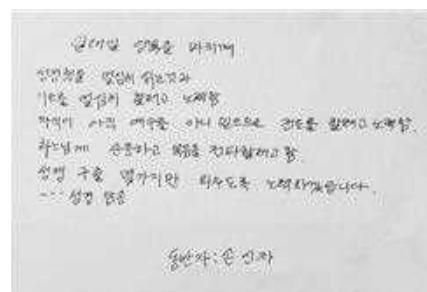
김애경 양육자 - 박희정 동반자



송복임 양육자 - 장정에 동반자



손신자 동반자 - 신동미 양육자



이유리 동반자 - 이연실 양육자



강인선 양육자 - 이문임 동반자



김주원 동반자 - 박형숙 양육자



김희숙 동반자 - 신동미 양육자



김명희 양육자 - 김가영 동반자



최한희 동반자 - 도승애 양육자

일대일 양육 동반자 과정(제4기)
초대합니다. *^^*

✓신앙의 멘토 한 명을 만나고 싶다면!!
✓체계적인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뭔가 해 보기 원한다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싶다면!!
✓신앙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고 싶다면!!

일대일 양육 동반자 과정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 성령께서 마음에 노크를 하시면 Yes 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교육기간: 16주 (주1회 2시간)
교재비: 20,000원
문의: 이수경 전도사 010-9575-4124



<일대일 양육 동반자 과정 신청 링크>

중·고등부 학습, 세례, 입교를 마치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에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학교의 과정을 거치며 입교가 중학교 3학년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입교를 통해 더욱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 입교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 신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성인이 되어도 신앙을 잘 지켜야 하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입교 교육을 통해 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기초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입교교육의 숙제였던 성경통독과 매일성경을 통해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교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권하진

어느덧 충현교회를 다닌지 거의 16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대를 하며 교회에 봉사했던 즐거운 일, 코로나로 인해 2년간 교회에 직접 나오진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렸던 안타까운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지난 15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제게 있을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올해 세례받는 사람이 저 밖에 없다는 말에 기대되기도 했지만 떨림이 더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16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동안 마찬가지로 16년 동안 학교와 주위 친구들에게서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을 배웠고, 이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며 담임목사님께서 질문하신 4개의 질문에 직접 큰소리로 "아멘"이라 외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이 마음속에서 약하게 느껴졌고, 이 약한 감정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이 확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져 앞으로 일상에서의 행실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15일, 세례를 받기 전 들은 말씀은 반석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래보다 반석위에 세운 집이 더 견고하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과 이를 알고도 행실로 옮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실로 옮기는 사람과 듣긴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극명하다는 뜻입니다. 듣고도 행실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세례문답에 '아멘'이라 외친 세례교인으로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충현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부 김재영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와 목사님의 축복된 안수가 함께 했던 날, 울 예승이 새근새근 잠자며 유아세례 받던 16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2023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충현의 많은 성도들과 중등부 선생님들, 가족, 지인들 모두가 함께하여 축복해준 특별한 날, 인생에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입니다. 예승이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승이가 이렇게 기쁘게 입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아부에서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과 값없이 흘려보내준 넉넉한 사랑과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충현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며 들었던 말씀들,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들,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했던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 믿음의 버팀목으로 세워 질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했던 순간도, 엄마아빠의 주일 봉사로 일찍 집에 갈 수 없었던 순간도 불평 한번 없이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잘 와준 예승이가 너무나 예뻐요.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꼭 가야 할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감사하며 순종하는 예승이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로 예승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온 마음으로 되새기며 두려워말고 강하고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입교한 30여 명의 모든 중등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입교의 자리를 빛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권예승 모 박순미



△고등부



▽중등부



10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가족위 기본과정부 수료자(32명)

강민주 강승화 강신의 고승재 공현남 권아름 김구일 김도희 김미원 김옥규 김원중 김제임스 박영균 박의영 박재준 방수현 서미자 서희정 오경희 이소영 이제니 이종진 장세라 장혜자 정서운 정수권 정영민 정예찬 정윤환 최경실 최중원 WILL WEBSTER

교육위원회 위탁 수료자(2명)

박린우 박예성

차세대위원회 위탁 수료자(7명)

남예람 박주선 이경진 정우진 정유진 최보빈 황산성



충현교회
상근직원모집

교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회계직원 0명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타교인은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및 기한 : 이메일 접수(eohyun2@naver.com) 10월 29일(주일)까지
문의: 사무국 552-8200(401), 010-4181-1714

집사회 월례회

일시: 2023년 10월 29일(주일) 12:10

장소: 집사회 사무실

앞마당 음악회

일시: 10월 26일(목) 12:10~12:25

장소: 교회 앞마당

금주 단기선교 및 동역교회 파송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일본 3팀	일본 교토	김종녀 권사 외 8명	10월 25일(수)~10월 30일(월)
할렐루야 찬양팀	고창 석남교회	박진완 안수집사 외 18명	10월 26일(금)~10월 28일(주)

예배 담당(10/25~10/29)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0/25	수요 I	개혁 이전과 이후 (히 9:11-14) 박성덕 목사	강성은	박채경
10/27	금요일집회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롬 6:12-14)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10/29 종교개혁주일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언약이 형성한 네 가지 관계 (벧전 2:9-10) 한규삼 담임목사	임대영 박동진 위안복	전성욱 김종훈 송영상
제2차 학습·세례식	주일찬양	내면과 외면의 조화 (마 23:25-28) 윤준식 목사	임진실	김태식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윤성복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10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역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르투터기동제)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충현평생대학원	주간교육 (목) 오 전 11:00	충현복지관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763	김병순	기본과정	
2	1764	최명희	기본과정	
3	1772	강병권	기본과정	
4	1773	백미나	기본과정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769	김종민	기본과정	
2	1775	김기순	기본과정	사계숙

결혼

1. 전경진 군(전준호 안수집사·정영주 집사의 아들, 3교구)과 이연희 양(이희영 씨·김유숙 씨의 딸) / 10월 28일(토) 11:00 노블발렌티 샵
2. 조영훈 군(조상현 씨·김경진 성도의 아들, 9교구)과 최혜주 양(최두식 씨·오광순 씨의 딸) / 10월 28일(토) 17:10 상암 월드킴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

별세

1. 김대규 성도(김오근 집사·임길영 권사의 아들, 2교구) / 12일 별세, 14일 장례
2. 박근엽 은퇴집사(유명자 명예권사의 남편, 7교구) / 14일 별세, 17일 장례
3. 윤세택 타교집사(윤영희 권사의 부친·박병옥 은퇴안수집사의 장인, 8교구) / 16일 별세, 18일 장례
4. 정종옥 타교장로(정동훈 집사의 부친·장지는 집사의 시부, 10교구) / 17일 별세, 19일 장례
5. 박인순 타교권사(채명혜 권사의 모친·조종민 장로의 장모, 5교구) / 19일 별세, 21일 장례

핸드벨 연주대 대원 모집

문의: 강순 권사(010-3499-7391)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0/23~10/29)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3 (월)	권혁근/황순선	왕상 20:13-21	7교구
24 (화)	한규삼/남용승	왕상 20:22-34	전교인
25 (수)	이다현/남일홍	왕상 20:35-43	전교인
26 (목)	이성환/오혜섭	왕상 21:1-10	전교인
27 (금)	위안복/김원조	왕상 21:11-29	4교구
28 (토)	권순동/권순동	왕상 22:1-14	전교인
29 (주)	임대영/임대영	왕상 22:15-28	전교인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신광철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행정위원 행정위원 행정위원 소망부장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이상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교구위원장 재정위원 건축위원 새가족위원 기도원원감

김성호 조종민 이상복 지규성 최민석
행정위원 전도위원 봉사위원 선교위원장 선교위원

김명성 이창희 백봉선 박재현 임광신
이벤트담당장 행정위원장 재정위원장 행정위원 예배위원장

이흥기 송한천 조운준 최현규 남용승
감사위원장 5교구장 할렐루야전양대장 건축위원 봉사위원

김영환 변창대 허만선 안연식 현준봉
전도위원장 세움위원장 충현동산이사장 10교구장 전도위원

양효민 박원화 이상배 박명근 김종훈
당회서기 봉사위원장 당회부서기 8교구장 건축위원장

송영상 전성욱 박건일 배종락 김철남
성경통독부장 건축위원 4교구장 선교위원 안내부장

김희동 홍금성 강태영 장기락 홍순길
3교구장 새가족위원장 외선부장 뱀열찬양대장 교육위원장

정인욱 남중호 윤순규 김상열 이경환
기획위원장 차세대위원장 1교구장 찬양위원장 6교구장

이양선 박성철 김열환 김세종 한홍연
헌금위원장 11교구장 예배부장 선교위원 임마누엘찬양대장

최규옥 최승민 이석재 송문식 문영규
7교구장 제자교육훈련부장 평생대학원장 중보기도부장 2교구장

김충식 신현욱 임병익 박노익
전도위원 차랑안배부장 사랑부장 12교구장

■ 목사

이기영 강성은 김주환 이성환 권혁근
1교구 선교위원 11교구 12교구 7교구
윤성복 박동진 문진호 정성훈 김유석
9교구 2교구 3교구 8교구 에바다부
김상래 전영재 박영환 위안복 윤준식
브릿지 10교구 6교구 4교구 5교구
임대영 신경철 임진실 김승래 배진현
고등부 초등부 사람부 신혼가정부 휴직
박성덕 권순동 박요셉 이다현
청년2부 청년1부 청년3부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주은숙 이수경 홍명주 유현정
5교구 6교구 평생대학원 9교구 유년부
조기숙 여정광
7교구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최준호

외선부 소망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이영미 박예령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병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람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민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강경생 김산수 김영남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섭 홍정화